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 7련대칭호쟁취운동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당이 정해준 돌격침로따라 전속으로 내달리는 대비약의 기상

러명거리건설장에서 살림집내외부미장 78%계선 돌파, 창문달기 및 내부공사성과 계속 확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피하는 심장마다 새기고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세계앞에 더욱 힘있게 과시할 인념으로 총돌격, 총해진하고있는 러명거리건설자들이 200일전투의 허무허무 높은 공산실적으로 이어가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전민적인 살림집들의 창조공사가 전부 끝난 건설장에서는 내외부미장공사에 계속된 단원들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금 러명거리건설장으로서 살림집들의 허무허무 미장실적은 4만여㎡, 최고 6만여㎡로서 미려 과학자거리건설때보다 평균 2배 이상, 최고 3배이상이나 되며 4 일현재까지의 내외부미장실적은 전체 미장공사량의 78%계선을 넘어섰다. 뿐만아니라 방수미장, 장식미장을 비롯한 내부공사실적이 계속 오르고 창문달기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지금 현일 이곳을 찾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이채로워지는 러명거리건설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다가올 완공의 시각을 그려보고있으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행동을 자력자강의 첩보로 후려감기며 줄기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역적 기상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명령어나 불행은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 당의 원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러명거리건설지휘부에서는 건설자들의 심장에 배입, 배시각 격동의 불을 타는 화선식정지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모든 시공단위에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벌여주고 조직정지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뿐만아니라 지역자강의 정신으로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벌여주고 시공단위별사회주의경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러명거리건설에서 기어이 만리마시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해나갈 건설자들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열의를 대변한 불은 기발함이 창공높이 휘날리고 그들을 만리마속도창조로 부르는 전두속보관들이 건설장의 곳곳에 준비하게 세워졌다. 집중보화, 면속보화, 명중보화의 위력을 날김없이 과시하는 화선식들이 계속 줄기차게 벌어지는 속에 공사장에서는 살림집들의 내외부미장, 방수미장, 장식미장, 창문달기, 타일붙이기 등 모든 공사가 밀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미 내외부미장공사를 전부 결속한 모란55-1-가, 나호동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이 현년혁일, 만민보종의 큰발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앞선 기술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방수미장, 장식미장 등 마감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이곳 부대에서는 모든 건설자들이 공산실적이 부단히 오르는데 맞게 시공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군 100층에 달하는 8개 대성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건설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3대혁명전시관장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대혁명전시관장립 70돐 기념보고회가 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3대혁명전시관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3대혁명전시관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35(1948)년 8월 6일 조국해방 1주년기념 민주건설전람회장을 찾으신 때로부터 전시관을 수립차에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인 정당성과 생활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식의 독특한 전시관에 대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대혁명전시관에 10여차례 명도의 자욱을 새기시면서 전시행성과 방법, 참관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전시관이 인민들이 즐겨찾는 전망장소, 중요한 교양거점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3대혁명전시관이 창립후 지난 70년 동안 민주건설세력인들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자랑찬 발전을 견출 걸어오면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시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상들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 사진물, 명세들을 부군관들에게 정중히 모시었으며 주체사상로작전시관을 훌륭히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이론적업적을 깊이 있게 해설선전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장사들의 자질을 높이고 학술전성과 전시형식, 방법을 혁신하여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대단기마다 우리 인민이 자국의 힘으로 만들어낸 기계설비들과 제품들, 성과자모들을 빼지없이 전시하고 해설선전사업을 심화시켜 우리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적극 선전하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시관에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만들고 집단 및 실용과학기술연구성과를 조직적제품들에 대한 전시와 보급, 교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국내, 국제전람회들을 보장하여 과학기술적보급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3대혁명전시관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일면단심당과 수령을 만드는 벼슬같은 총정파 자력자강의 정신을 지니고 혁명초소를 성실하게 지켜왔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총장 운영실